

# 살아 있는 교회 (The living church) (John Stott, 2007, IVP)

## <과제>

John Stott의 <살아 있는 교회>를 읽고 독서보고서 제출

▷ 각자 제출할 보고서: A4 한쪽 분량에 아래 내용을 요약

- (1) 책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부분, 왜 은혜가 되었는지 설명
- (2) 자신, 청년학교, 백주년기념교회(또는 소속 교회나 공동체)에게 적용할 내용
- (3) 청년학교에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 한 가지 이상 언급

▷ 보고서는 12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양청 카페에 올리기

정독	보고서 제출	보고서 지참
V	V	(V)
V		V
V		
-		

## <오늘 수업>

▷ 책 내용 요약 (30분)

▷ 반별 토론 (1시간)

- Sharing: 보고서 1, 2번 (+ 여유가 있으면 3번)

- Discussion: 개인별 적용사항 확정 / 반별 공동(공동체적) 실천 사항 및 방안 채택

(제7장 연보 中) "나는 고린도후서의 이 두 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연보가 한 차원 높아지고, 더 사려깊고 더 조직적이 더 희생적으로 연보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기를 희망한다. 나 자신도 (먼저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이미 나의 연보를 검토하고 증액했다."

(결론 中) "이 결론을 통해 나는 당신이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당신을 향한 나의 호소를 과감하게 전하려고 한다."

▷ 각 반 발표 (30분)

- 각 반 1명 본인의 과제 발표 (보고서 1, 2번 위주로 5분)

- 각 반 1명 반별 공동(공동체적) 실천 사항 및 방안 발표 (5분)

<이 책의 목적>

- ▷ "참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의 성격을 항구적으로 규정해 줄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표지는 있다.  
"본서의 목적은 진정한 교회, 살아 있는 교회라고 부를 교회의 여러 특성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서론 中)
- ▷ 살아 있는 교회 ⇔ ( ) 교회
- ▷ (c.f.)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John Stott, 1992) 참조(특히 제4부 교회론)

<이 책의 목차>

- ▷ 서론(시대진단)
- ▷ 1. 교회의 본질 - 성경적이고 역사로 입증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들
- ▷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 예배하는(Worshiping) 교회 - 2. 예배
- ▷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 전도하는(Evangelizing) 교회 - 3. 전도
  - 세상을 바꾸는(Impacting) 교회 - 8. 영향력
- ▷ 교회와 초대사도와의 관계:
  - 배우는(Learning) 교회(1) - 4. 사역
  - 배우는(Learning) 교회(2) - 6. 설교
- ▷ 교회 内外의 인간관계:
  - 돌보는(Caring) 교회(1) - 5. 교제
  - 돌보는(Caring) 교회(2) - 7. 연보
- ▷ 결론(개인적 호소): 21세기의 디모데를 찾아서

<이 책의 추천사>

- ▷ 현대 교회론의 진수  
"일생에 걸친 성경 연구와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한 교회론의 진수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교회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실체라기보다는 그저 출석하는 모임으로 전락해 버렸다."  
"21세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넘치는 이 시대에 깊은 영감과 사고를 보여준다."
- ▷ 현대적인 적용의 촉구  
"교회생활에 대한 성경적 기초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문화에 적용해야 한다."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그의 교회론은 깨달음과 함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열망을 품게 될 것."  
"한국교회에서 상처받는 마음들에게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

## ■ <서론> 시대 진단

- ▷ 학문, 사회, 문화에 총체적 영향을 준 탈근대주의(post-modernism)
  -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서양 근대시기(16C-20C 중반)의 이성중심 세계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20세기 후반(1960~70년대)에 나타난 철학사조로, 탈이성적 회의주의, 탈중심적 다원주의/주관주의/상대주의를 표방함
  
- ▷ 보편적 절대성은 없다는 상대주의(relativism):
  -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도전은 '너희의 믿는 道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기독교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 ▷ 가치와 기준의 다원주의(pluralism):
  -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주의, 유물론, 고대 종교들, 신흥종교들, ....이 모두 세상의 영혼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 ▷ 교회가 점점 더 현대 문화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며,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교회론에 관한 도서들, 새로운 모델의 교회들(Emerging church)이 창만(漲滿)하다.
  
- ▷ 성경은 불변하지만 문화는 변한다. "우리에게 'RC'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나는 종종 말하곤 했다. 이는 Roman Catholic이 아니라, '급진적인 보수'(Radical Conservative) 교회로서, 성경이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보수'이지만, '문화'와 관련해서는 '급진적'인 교회를 말한다.
  
- ▷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또 변화하지만 (변화해야 하지만), 참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의 성격을 항구적으로 규정해 줄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표지들은 계속 있어 왔다. 본서의 목적은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부를 교회의 여러 특성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 ■ <제1장> 교회의 본질 -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 예루살렘 초대교회 [行 2:42-47]을 통해 본 살아있는 교회의 네 가지 본질적인 표지들

### (1)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표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성찬식) 오로지 기도(기도회)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 예배하는 교회(Worshiping church): 예배 공동체

▷ 성경적 균형이 잡힌 예배

- 공식적인 성전에서의 예배 & 비공식적인 집에서의 예배: 모든 교회는 작은 교제 모임들로 쪼개져야 한다.

- (축제로서) 기쁨이 넘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건한) 예배 (장례식 같은 예배 vs. 경박한 예배)

### (2) 교회와 바깥 세상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표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전도하는 교회(Evangelizing church): 전도 공동체

-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선교, 증거)는 (그들의 예배처럼)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세상을 바꾸는 교회(Impacting church): 영향력 공동체

### (3) 교회와 초대사도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표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배우는 교회(Learning church): 학교 공동체

- 사도적 계승: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가 지켜낸 교리의 연속

- “신약을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심을 다해 그것에 충성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 (4) 교회 内外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표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 돌보는 교회(Caring church): 교제 공동체

- Fellowship = Koinonia = Koinos(common, 공동의) 삶

- 자발적이고 너그러운 돌봄과 나눔, 검소한 생활방식,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 <제2장> 예배

▷ 예배:

-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함 (시105:3)
- 우리의 소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 교회의 최우선적 의무이자 특권

▷ 진정한 예배의 네 가지 주요 특성

(1) 성경적(Biblical) 예배:

- 예배는 '성경의 계시에 대한 반응' → 성경 중심의 예배
- 따라서, 예배 분위기는 해석된 진리의 성격에 따라 다채로워야 한다.

(2) 회중(Congregational) 예배:

- (사적 개인 예배와 함께) 그분의 백성이 모여 함께 드리는 공적 회중 예배가 중요
- 성직자들이 독점하는 예배가 아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 관망자 vs. 참여자
- 그리스도의 몸이 지닌 국제적이고 이종문화적 특성이 드러나는 회중예배: 인종, 언어, 계급, 문화 장벽을 초월하여 연합된 예배

(3) 영적(Spiritual) 예배:

- 죽은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의 형식주의와 위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도피처
- '영성'을 갈망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진정한 초월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 성(性), 이교, 신비주의, 뉴에이지...로 향하는 것은 비극이다.

(4) 도덕적(Moral) 예배:

- 교회 건물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의 올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그러한 삶을 수반한 사적 & 공적 예배

■ <제3장> 전도: 지역 교회를 통한 선교 (c.f., 현사그 4부 15장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

- ▷ (벧전2:9-10) 교회는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는(즉,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찬양을 널리 전파하는(즉,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이다.
- ▷ 복음전도의 형태: 개인전도, 대중전도, 지역교회의 전도(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게 생산적인 복음 전파 방식)
- ▷ 지역 교회가 복음전파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The local church must understand itself (its theology): 이중 정체성(double identity)
    - 성육신적 교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부름 받았을 뿐 아니라 (증거하고 섬기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냄 받은 한 백성 = 교회는 '거룩한' 동시에 '세속적'이어야.
  - (2) The local church must organize itself (its structures):
    - 이중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교회 건물, 예배 의식, 구성원, 프로그램) 조직화
    - "나는 교인들이 (예배, 교제, 가르침을 위해) 일요일에만 만나고 주중에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이 아주 건전한 것이 아닌가 (비록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과장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하곤 한다."
  - (3) The local church must express itself (its message):
    - 현대 세계에 '공명하는' 메시지, 피해야 할 양극단: Total fixity & Total fluidity.
    - "고대의 말씀과 현대의 상황 사이, 성경과 문화 사이, 성경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민감성 사이, 복음의 절대성과 시대성 사이의 변증법을 두고 씨름해야 한다."
  - (4) The local church must be itself (its life):
    -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즉,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있을 때 인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 <제8장> 영향력: 빛과 소금

- ▷ "매우 거대한 요청":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로서, 개인적으로는 제자로서) 자신의 나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그 나라의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널리 퍼지고 스며들게 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 ▷ 빛과 소금의 진리 (마5:13-16)
  - (1)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빛과 어둠이 다르고 소금과 부패가 다른 것처럼. (마6:8, 롬12:2)
  - (2)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 사회 속으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스며들어야 한다. 빛이 어둠에 소금이 생선에 그렇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세속 문화에 침투하는 (타문화 선교사, full-time 교역자 만큼이나) 훌륭한 방법은 우리의 일상사를 통하는 것이다.
  - (3)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사회에 어둠과 부패가 심하다면 그것은 대부분 빛과 소금의, 즉 우리의 책임이다.
  - (4)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 침투하지만 순응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기독교적 독특성(Christian Distinctives)을 유지해야한다. 빛이 밝음을 소금이 짠맛을 지키듯이. 기독교적 독특성은 더 큰 의(마음의 의), 더 넓은 사랑(원수 사랑), 더 고상한 야망(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함)에 있다.

■ <제4장> 사역 (c.f., 현사그 4부 교회 17장 교회의 목사)

- ▷ 성직자 중심주의와 反성직자주의라는 비성경적 양극단을 피해야한다.
- ▷ An Every-Member Ministry: 성직자는 목회사역(말씀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사역은 은사에 따라 위임한다.
  
- ▷ 사역(목양)의 세 측면
  - (1) The Example of the Apostle (목자)
    - 바울은 가르침과 전도에서 철저하여 에베소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 성직자는 목자로서 목양적 철저함이 필요하다.
  - (2) The Invasion of False Teachers (이리)
    - 선한 목회자는 거짓 예언자들과 맞서 자신의 성도들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 신학적 논쟁은 감수성이 풍부한 그리스도인들의 구미에는 맞지 않지만 피하면 안된다.
  - (3) The Value of the People (양무리)
    -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사셨으며, 성령께서 감독자를 임명하셨다.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의 진리이다.
    -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상기하기위해 이 보다 좋은 목상은 없다.

■ <제6장> 설교 (c.f., 현사그 3부 성경 12장 말씀을 조옮김함)

- ▷ 설교자들이여, 교회의 생명은 설교에 달려있다.
  
- ▷ 설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특성들: (역설적인 긴장 속에 서로 보완적인) 설교의 다섯 가지 역설
  - (1) 성경적이거나 현재적인 (Biblical and Contemporary):
    - 고대의 본문을 현대의 상황에 연결하기 위한 (성경연구와 세상연구의) Double listening
  - (2) 권위적이거나 잠정적인 (Authoritative and Tentative):
    - (절대 무오한) 말씀과 (오류가 섞인) 해석 사이의 균형
  - (3) 예언적이거나 목양적인 (Prophetic and Pastoral):
    - (심판과 징계의 경고를 포함한 교리적 진리와 윤리적 기준을 증거하는) 단호한 예언자적 증거와 (관용과 자비가 필요한) 부드러운 목양적 돌봄 사이의 균형
  - (4) 은사이거나 공부하는 (Gifted and Studied):
    - 설교는 은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사를 받은 말씀 사역자는 먼저 학자가 되어야 한다.
  - (5) 숙고하나 열정적인 (Thoughtful and Passionate):
    - 지성과 감정, 명쾌한 사고와 깊은 정서, Logic on fire, Eloquent reason,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빛'과 '불' 모두다.
  
- ▷ 사탄은 모든 균형과 중용의 적이다. BBC (Balanced, Biblical Christianity)의 진정한 설교는 이러한 적절한 tension과 불협화음으로 전달된다.

■ <제5장> 교제

▷ 코이노니아(Koinonia):

-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따스함/안전감과 같은 주관적 느낌(?), 그 이상(!)의 객관적 실체

▷ The Implications of Koinonia

(1) Share-in:

- 공동체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함 (Our Common Inheritance)

(2) Share-out:

- 공동체가 함께 [외부로 나아가 영적, 물질 부(富)를] 나누어 줌 (Our Common Service)
- 물질 부(富)를 나눔: 제7장 연보

(3) Share-with:

-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상호성) [기쁨, 슬픔, 확신, 의심, 필요, 두려움 등을] 주고 받음 (Our Mutual Responsibility, 상호 사랑)

■ <제7장> 연보(捐補, Giving)

▷ 열 가지 원리(고후8-9장)

- Springing from the Trinity:

- (1)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무된다; (3) 성령의 한 은사이다.

- Creating Equality According to Our 재력:

- (4) 수입/재산에 비례적이어야 한다; (5) 균등/정의에 기여한다.

- Careful Supervision and Friendly Rivalry:

- (6) 면밀하게 감독되어야 한다; (7) 약간의 우호적/선의의 경쟁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 A Harvest with Symbolic Significance:

- (8) 추수와 닮았다-뿌린대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거둔다; (9)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p.148 2nd 문단)

- The Result: (10)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증진한다.

■ <결론(개인적 호소): 21세기의 디모데를 찾아서>

▷ "이 결론을 통해 나는 당신이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당신을 향한 나의 호소를 과감하게 전하려고 한다."

▷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삼중적인 호소 (A Threefold Appeal)

- 디모데는 경험이 부족하고, 수줍고, 허약한 사람이었다. 그도 우리처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필요로 했다.
- (딤후6:11-12)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

(1) "이것들을 피하고" - 윤리에 대한 호소:

-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좇으라. 거룩에 이르는 과정에 수동성이란 없다.

(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 교리에 대한 호소:

-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싸움이다.

(3) "영생을 취하라" - 경험에 대한 호소:

- (소유와 향유 사이에서) 영생과 자유를 (소유할 뿐 아니라) 충분히 향유하고 완전하게 경험하라.

▷ 삼중적 호소의 적실성: 이 호소는 "보편적 절대성"에 비우호적인 이 시대의 (포스트모던) 사조에 적실(的實)하다.

-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추구하라
-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위해 싸우라
-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취하라

▷ 삼중적 호소의 균형성: 이 호소에는 교리와 윤리와 경험의 측면이 통합되어 있다.

- "진리를 위한 전사들 중에 선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선하지만 진리를 위한 싸움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교리와 윤리는 무시한 채 종교적인 경험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는 왜 언제나 극단으로 치닫는가? 이들 세 가지는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이여, 균형을 잡아!"
- 21세기의 디모데, 그들은 의를 추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일에 "동시에" 충성한다.

(끝)